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강원도민일보	23면	"기부로 이웃을 따뜻하게" 강원 사랑의 온도탑 제막	1
江原日報	21면	“따뜻한 나눔으로 올겨울 100도까지 올려주세요”	1
江原日報	12면	강릉그린실버악단 창단 25주년 음악회	2
강원도민일보	22면	지역 예술단체 청소년올림픽 성공 힘 모은다	2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3
江原日報	11면	원주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3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문화원 수강생들 한 해 결실 나눈 '문화인의 밤'	3
江原日報	07면	횡성 향토기업 두산이엔티 제2공장 준공	4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의회 2024년 예산안 심사 돌입	4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예결위 본심사 … 농업예산 증액되나	5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교육위, 내년 전자철판 보급 예산 155억여 원 ...	5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군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6
강원도민일보	12면	문정공 원정 최수성 502주기 추모 제향	6
江原日報		[포토뉴스]이영욱 도의회 교육부위원장, 모교 흥천고 방문 ...	7
강원도민일보	01면	내년 초교 입학생 수 사상 첫 40만명 아래로	8
강원도민일보	04면	점점 더 줄어드는 아이들...수도권·해외학생 모시기 사활	8
강원도민일보	01면	대책없는 폐광·일방적 복구 방안...주민 불만 고조	9
江原日報	02면	국방부 무단점유 강원도땅 축구장 40개 면적 되찾는다	10
강원도민일보	02면	태백 청정수소 특구 결국 해제...업체 선정 책임공방 예고	11
강원도민일보	05면	15개 시·군 비대면 진료 "의료공백 해소" "오진 위험 증가"	11
江原日報	04면	강릉 통일공원 北 잠수함, 해군 1함대로 이전	12
江原日報	10면	춘천시 푸드테크 지역형 신모델로 우뚝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장성광업소 폐광 후 가치 활용으로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수소 공급 대란 되풀이 안 된다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깊어지는 경기불황 서민 고통, 민생 대책부터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올해 동해안 지진 84차례, 대응 역량 키워야 한다	16

# 강원도민일보

## “기부로 이웃을 따뜻하게” 강원 사랑의 온도탑 제막

성금 목표액 85억3000만원  
첫 날 단체·개인 기부 이어져  
시군 순회·구세군 모금 진행

위축된 경기만큼 추워진 날씨 속 어려움을 겪는 이웃 돕기 나눔 온도를 높인다.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계식)가 지난 1일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본격 모금에 들어갔다.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김진호 춘천시의장, 이경희 도복지국장, 이건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 서정원 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 김종태 강원아너소사이터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가 이어졌다.  
강원랜드가 3억5000만원을 전달하



희망2024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이 지난 1일 도청 앞에서 유계식 회장, 권혁열 도의회의장,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의장, 서정원 강원도민일보 상무이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며 첫 기부에 나섰고 서울에프엔비도 1억원을 약정했다. 야생버섯과산삼밴드가 2838만원, 송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과 춘천시나눔봉사단도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김종태·권영옥 아너 부부, 정이수·이규란 아너 부부가 1억원씩 기부

해 눈길을 끌었고 송호준(3000만원)·임기수(1000만원) 아너도 잇따라 기부했다. 장덕범·홍경숙 아너 부부도 1000만원을 전하며 아너 가입계획을 밝혔다.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아

래 이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올해 총 성금 목표액은 85억3000만원으로 이달부터 도내 18개 시·군에서 순회 모금도 진행된다.  
유계식 회장은 “25주년을 맞은 캠페인이 매년 나눔을 차곡차곡 쌓아온만큼 나눔이 절실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순조롭게 모여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신경호 교육감은 “개개인이 촘촘이 되어 지역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다. 서정원 상무는 “나눔을 함께 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지역 언론사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했다.  
구세군도 같은 날 춘천 명동거리에서 종소리를 울리며 거리 모금을 시작했다. 2023년 강원지역 구세군 목표 금액은 1억 3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 늘었다. 강주영·박재혁

# 江原日報

## “따뜻한 나눔으로 올겨울 100도까지 올려주세요”

희망2024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목표액 85억3천만원 ... 62일간 대장정 시작



◇희망 2024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지난 1일 강원특별자치도청 광장에서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권혁열 강원자치도의장, 신경호 강원자치도교육감, 김진호 춘천시의장, 이건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희망 2024나눔캠페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지난 1일 도청 앞 광장에서 열려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기원했다.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있게’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된다. 캠페인 나눔 목표액은 85억3,000만원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도민들은 춘천 공직전 사거리에서 나눔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금액은 신(新)사회문제 대응 지원, 안전한 일상 지원, 사회적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사업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랜드가 1호 기부자로 나서 3억5,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 야생버섯과산삼밴드 2,835만5,000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가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마음을 전했다. 김종태·권영옥씨 부부와 정이수·이규란씨 부부도 각각 1억원을 약정하며 강원자치도 8호, 9호 부부 아너의 탄생을 알렸다. 또 도내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도모금회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배분금 5억원을 전달했다.  
유계식 도모금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추운 겨울 고통 받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순조롭게 모금이 이뤄져 소외된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눔 확산을 통해 많은 사람이 즐겁고 밝은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많은 선행을 한번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힘든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자지만 소중한 마음을 모아 줄 것을 도민들께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는 “좋은 사회, 좋은 선진국을 결정짓는 기준은 기부문화에 달려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민

간에서 많이 채워주고 계신다”며 “강원일보 역시 우리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이건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 김종규 춘천 MBC 대표이사,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 江原日報

2023 12 04 ( )

12

강릉그린실버악단

창단 25주년 음악회

【강릉】강릉그린실버악단이 지난 2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창단 25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김기영 강릉시의장과 심재빈 대한노인회 강릉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홍규 강릉시장과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등도 축전을 보내 강릉그린실버악단의 창단 25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강릉그린실버악단은 ‘아프리카 심포니’와 라데츠키 행진곡, 팝스 메들리, 강릉 어머니 길 등의 연주를 선보였다. 또 솔향실버무용단과 강릉시평생학습관 플루트 수강생을 비롯해 초청가수 이용주와 전속가수 이성우 등의 축하 공연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류호준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22



강원민예총이 주관한 ‘문화의 향기로 강원을 노래하다’가 최근 강릉에서 열렸다.

## 지역 예술단체 청소년올림픽 성공 힘 모은다

민예총·예총·도문화원협 공동

강릉서 지역예술인 중심 무대

강원지역 대표 문화단체들이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홍보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뭉쳤다.

‘하나의강원!글로벌강원!문화의향기로 강원을 노래하다’ 행사가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렸다. 이날 월화거리은행나무앞에 마련된 행사에는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회 의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고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

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를 다짐했다. 강원민예총과 강원예총,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가 처음 공동 개최한 행사다. 올해는 강원민예총의 주관으로 강원문화예술을 대표하는 3개 단체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세계 속 강원의 문화를 꽃피우다’라는 주제 아래 무대를 꾸몄다.

예총에서는 소프라노 정혜원과 테너 민현기, 민예총에서는 하슬라 댄스와 재즈-서플, 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전통무용팀 더얼쑤 등이 함께했고, 흥광임 무용가, 팝페라 그룹 ‘더보이스’, 국악가수 권미희 등의 초청공연도 진행됐다. 이날 김별아 이사장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진형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11



**원주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원주고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최근 원주고 더불어홀에서 박정하(원주갑)·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유길선 회장(25대)이 이임하고 박승목 회장(26대)이 취임했다.

# 江原日報

2023 12 04 ( )

11



**원주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 원주고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일 원주에서 박정하·송기현 국회의원, 원강수 원주시장, 김기홍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유길선 회장이 이임하고 박승목 회장이 취임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11

## 원주문화원 수강생들 한 해 결실 나눈 '문화인의 밤'

올해 원주문화원(원장 이상현) 문화인의 밤 행사가 최근 문화원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원 문화학교수강생들의 한해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로,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과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들, 박순결 원주소방서장, 김의도 강원도민일보전무·원주본부장, 유종우 노인회 지지회장, 문화원 가족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수강생 작품 전시회 막을 올리는 테이프커팅식과 문화학교수강생 413명의 수료식에 이어 가야금, 사물놀이, 무용 등 그간 갈고닦은 실

력을 선보이는 수강생 공연들이 행사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문화원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임길자 문화원 부원장이 시장상을, 채희승 강사가 시의장상을, 박은순 학생 총무 등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또 심국희 강사와 박인숙 사랑회 회장이 문화원 향토문화상을, 전제인·정규옥 강사와 고현석 동아리 단장이 문화원 공로패를 받았다.

권혜민

황성 향토기업 두산이엔티 제2공장 준공



◇황성 향토기업 두산이엔티 제2공장 준공식이 지난 1일 김명기 황성군수,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이윤범 원주지방환경청장, 유관공단 및 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년 매출 300억 돌파 전망**  
 황성 향토기업인 두산이엔티가 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식품 용기 등 국내 고품질 페트(PET)병 재활용 시장 개척에 나섰다.  
 두산이엔티는 지난 1일 황성을 마산리에 신축된 제2공장에서 김명기 황성군수,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이윤범 원주지방환경청장,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 김흥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두산이엔티는 하루 PET 30톤, PE·PP 15톤을 재생 처리해 온 제1공장에 이어 하루 PET 45톤, PE·PP 30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2공장까지 가동하면 2024년 매출이 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공장에서 근무할 신규직원 30명도 채용할 방침이다.  
 2014년 출범한 두산이엔티는 페페트병을 재활용해 섬유나 식품 용기 원료 등을 재생산해 이웃도어 의류업체인 블랙야크 등 관련 기업에 원료를 공급한다.  
 탁용기 대표는 “B TO B(Bottle to Bottle)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페페트병이 새로운 원료로,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명기 군수는 “황성 향토기업이 첨단 기술력으로 자원 재활용이라는 큰일을 해내고 있어 자랑스럽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강원도의회 2024년 예산안 심사 돌입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일(4일)부터 나흘 동안은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강원도 내년도 예산안,  
 11일부터 사흘 동안은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7조 5천 800억 원 규모이고  
 기금은 1조 70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 예산보다 3천 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3조 9천 7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기금은 1조 8천 400억 원을 제출했습니다.  
 김도균

2023 12 04 ( )

江原日報

03

# 도의회 예결위 본심사 ... 농업예산 증액되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짓고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농업기술원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됐다고 심사를 거부하고 농업 예산 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낸 만큼 증액 여부가 주목된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강원자치도 예산안 심사는 이날부터 7일까지 나흘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이뤄진다.

관심을 끄는 예산은 2024년도 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5,304억

## 오늘부터 추경예산안·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돌입 농림위 예산 삭감 이유로 심사 거부 ... 여야 갈등 계속돼

원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업기술원 예산이 과다 삭감됐다고 심사를 거부했다. 강원자치도는 세수 감소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농업 예산 자체는 올해보다 107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농업단체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농정국 심사에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등을 증액하도록 했다.

농업 예산을 두고 여야 도당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강원 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됐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은 도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도당은 “사상 최악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이 이어 도의 주먹구구식 농업 예산 편성까지 농가를 비롯해 도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

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며 도교육청 전자철판 보급 사업 155억5,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춘천고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은 지역과 학교 간 형평성을 이유로,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은 현 청사 활용계획 미비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4일 김명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별 질의에 나선다. 이무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올해 대비 3,017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돼 도 자체사업을 22.9% 삭감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2023 12 01 ( )



## 강원도의회 교육위, 내년 전자철판 보급 예산 155억여 원 전액 삭감

강원도교육청이 편성해 상정한 내년도 전자철판 보급 사업 예산 155억여 원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전자철판 보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이 적은 사업 계획 변경과 일부 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내년도 사업 예산 155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재검토한 뒤 추진할 것을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이달(12월) 15일에 열리는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15



**평창군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2023 평창군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가 최근 군문화예술회관에서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정성문 군행정지원국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 김순열 군새마을회장과 새마을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12



**문정공 원정 최수성 502주기 추모 제향** 강릉최씨 대종회가 주관한 문정공 원정 최수성 502주기 추모제향이 3일 황산사에서 최종현 강릉최씨 대종회장, 최영갑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 허병길 성균관 유도회 강릉지부회장, 이상대 성균관 유도회 전학, 최승순 도의원, 최익순 시의원, 김복기 강릉김씨 대종회 회장, 강릉최씨 각파 회장, 문중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2 04 ( )

## 江原日報

[포토뉴스]이영욱 도의회 교육부위원장, 모교  
홍천고 방문 특강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이 지난 1일 모교인 홍천고등학교를 방문해 1,2학년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꿈과 열정이 있는 홍고인 되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이 지난 1일 모교인 홍천고등학교를 방문해 1,2학년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꿈과 열정이 있는 홍고인 되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이 지난 1일 모교인 홍천고등학교를 방문해 1,2학년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꿈과 열정이 있는 홍고인 되기'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01

## 내년 초교 입학생 수 사상 첫 40만명 아래로

강원도 초등생 6만9300명  
내년 6만7427명 감소세

저출산 여파로 내년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학생수 급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역시 해마다 3% 안팎씩 감소하다가 2025년부터 초등학생 수 급락이 시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이달부터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학통지서 발송과 예비소집이 시작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학생수 급감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감하던 시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243명이던 출생아수는 이듬해 35만7771명으로 1년생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강원도는 올해 6만9300명으로 7만명선이 무너졌다. 2024년도내 초등학생수는 6만7427명으로 2022년 대비 4104명(5.73%) 줄어든다.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화천초 논미분교장, 인제 원통초 신덕분교장, 고성 광산초 흘리분교장·대진초 명파분교장 등 4곳을 폐지하기로 했다. 화천 오음초와 봉오초는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된다.

오세현 > 관련기사 4면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04

## 점점 더 줄어드는 아이들...수도권·해외학생 모시기 사활

### 초등생 급감 강원교육 직격탄

2028년 도내 8곳 20% 이상 ↓

농어촌유학 학교 대폭 확대 등

직업계고 신설·개편 학생 유입

저출산 여파로 인한 초등학생 급감이 현실이 되면서 강원교육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체적인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인구를 유입해야 하는제로섬 게임이 시작, 교육계의 눈치싸움도 더 치열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른 지역 학생은 물론이고 외국 학생들까지 유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학령인구 급감 여파에 강원교

2022~2028 초등학생 급감 추이  
출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도	초등학생수	전년 대비 감소
2022년	7만1531명	-846명
2023년	6만9300명	-2231명(3.11%)
2024년	6만7427명	-1873명(2.70%)
2025년	6만4418명	-3009명(4.46%)
2026년	6만1828명	-2590명(4.02%)
2027년	5만9093명	-2735명(4.42%)
2028년	5만5872명	-3221명(5.45%)

육도 체질 개선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 태백·정선 폐광지역 급감 폭 커  
학생수 급감의 가장 큰 문제는 감소속도가 더욱 가속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 추계에 따

르면 2024년 도내 초등학생수는 6만7427명으로 2022년 대비 4104명(5.73%) 줄어든다. 2025년에는 6만4418명, 2026년에는 6만1828명으로 예측됐다. 교육청이 예측한 2028년 도내 초등학생수는 5만5872명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1만5659명 차이가 난다. 6년생 21.89%가 줄어든 셈이다.

2028년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대비 초등학생수가 20% 이상 줄어드는 지역은 8곳에 달한다. 춘천(26.89%), 강릉(21.39%) 등 대도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태백이다. 올해 1688명인데 백 초등학생수는 2028년 958명으로 730명 준다. 비율로 따지면 43.24%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가장 큰 감소폭

이다. 정선역시 올해 1101명인 초등학생수가 2028년 767명으로 30.33% 줄어 폐광지역의 학생수 급감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 ■ 교육청 "해외 학생도 유치하겠다"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 학생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교육청이 주목하는 정책은 직업계고 체질 개선이다. 산업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계고 학과 신설·개편을 통해 다른 지역 학생을 강원도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교육청이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지역 학생은 외국도 포함된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타 지역 학생 1000명, 외국 학생 1000명을 강원도로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 지역 학생 유치전도 확대된다. 교육청은 '2024 강원 농어촌유학'에 참여할 도내 학교를 선정했다. 내년도 사업 참여 학교는 기존 4개 지역(춘천·홍천·인제·영월) 6개 학교에서 9개 지역(원주·삼척·양구·양양·정선·추구) 17개 학교로 대폭 늘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3곳(원주 귀래중, 홍천 내촌중, 영월 북전중)이 추가돼 중학생들도 강원도로 유학을 올 수 있게 됐다. 모집 인원은 올해 5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확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생률 감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유학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현

2023 12 04 ( )

# 강원도민일보

## 대책없는 폐광·일방적 복구 방안...주민 불만 고조

01

광해공단, 장성 폐광수 채굴 계획  
주민 "활용해야 효과, 수물 반대"  
도계 대체산업 확정도 지지부진

태백 장성광업소(2024년)와 삼척 도계광업소(2025년)가 차례로 문을 닫는 가운데 일방적인 광해복구사업과 대체산업을 놓고 지역의 반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3일 본지 취재결과 한 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대한석탄공사 광해개발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장성광업소 갱내를 폐광수로 채워 광해복구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온전한 장성광업소의 보존을 기초로 한 광해복구가 이뤄지고, 대체산업 추진과 미래발전을 위해 폐광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주영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장성광업소의 자산적 가치를 무시하고 갱내 수장을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보존을 기초로 한 광해복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강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장성지부장은 "장성광업소의 환경과 가치는 현장에 있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폐

광수로 일터를 수장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지역 87개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현안대책위원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미래에너지인 청정메탄올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대체산업은 장성광업소 폐광을 활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수물행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대한석탄공사 삼척 도계광업소가 2025년 말 폐광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대체산업 유치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석공노사정협의체는 장성광업소(2024년)와 삼척 도계광업소(2025년) 등의 단계별 조기 폐광안에 잠정 합의했다.

도계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큰 축인 광업소가 아무런 대책 없이 폐광할 경우 도계는 한순간 사라진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 일자리 등을 위한 대체산업 및 주거공간 확보 등 납득할 만한 지원책이 없을 경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척시는 암치료 전문시설인 '중입자 가속기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입자가속기는 조성비

용이 최대 3000억 원대에 이르는 데다 연간 운영비도 200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이 이달 초 성할 계획이어서

최종 결론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박치석(56) 도계읍 상생현안대책위원장은 "현재 대체산업으로 논의 중인 중입자 가속기 의료산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주민 반

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아직 연탄 등을 사용하는 국내 기저 사용층을 위한 비축 저탄용 가행탄광 특구 지정 등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민·김우열

2023 12 04 ( )

02

江原日報

# 국방부 무단점유 강원도땅 축구장 40개 면적 되찾는다

땅값만 300억원 육박  
춘천 27개 필지 최다  
도 부지 교환 등 추진

국방부가 무단 점유, 무상 사용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유의 토지가 축구장 40개 규모인 79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땅값만 300억원에 육박한다.

강원자치도는 내년부터 국방부와 부지 교환, 매각 등을 통해 재산권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의 협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의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 중인 도유지는 73개 필지 25만5,000㎡, 땅값 248억원이며, 무단 점유 중인 도유지는 118필지 53만7,000㎡, 땅값은 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보면 춘천이 27개 필지로 가장 많고 재산가액으로 따질 경우 239억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춘천시 우두동, 동내면 등 도심의 가치가 높은 도유지를 국방부가 무단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도유지 2만 필지 이상을 전수조사해 국

방부가 무단으로 점유 중인 도유지를 찾아냈다.

또 국방부와의 실무협의를 벌여 실태조사 현황을 설명했다. 도는 국방부 소유 유휴부지와 교환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원지역 국방부 유휴부지는 205만3,0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군부대의 지자체 소유 토지의 무단 점유 또는 무상 사용은 6·25전쟁 이후 부대의 창설·정비 과정에서 측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긴급한 작전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안보·작전상 문제로 지자체에 무조건 돌려주기도 어렵다.

군사시설로 쓰이는 지자체 소유지는 군(軍)에 넘겨주고 군사적 필요성이 떨어진 국방부 부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제8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사규제 개선·군 유휴부지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3 12 04 ( )

# 강원도민일보

02

## 태백 청정수소 특구 결국 해제...업체 선정 책임공방 예고

참여 업체 경영 위기 사업 중단  
도내 수소산업 생태계 약제 우려  
도 "사업자 상황 올해 급격 악화"

속보=202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가 업체 경영 위기로 소득 없이 조기해제됐다. 부실업체가 특구 사업자로 지정된 배경(본지 2023년 11월 9일자 2면)을 둘러싸고, 특구 사업과 연관된 행정기관 간의 책임 공방이 불거

질 것으로 보여 강원공직사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중순벤처기업부는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서면상으로 열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를 의결했다. 위원회 과반 이상(20명)이 특구 해제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는 지난달 30일 정부관보에 게재됐다. 해당 규제자유특구는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활용하는 것이

목적인 특구이다. 시험·실증·개발 과정에서 어떤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관련 기술 개발에 용이하다. 올해 5월 태백시 철암동·동점동·장성동 일원(51만 3565㎡)에 처음 지정, 강원테크노파크와 ㈜SK에코플랜트, ㈜그린사이언스, ㈜제이엔케이히더, ㈜제이앤지가 참여했다. 운영 기간은 2027년 4월까지였다. 해당 특구는 태백시 소재 ㈜그린사이언스의 경영 위기로 소득없이 문을 닫게 됐다. 해당 특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그린사이언스가 지난해 말

완공한 철암발전소를 가동해야 했다. 하지만 업체는 하자보수·정비 등을 이유로 발전소가동을 늦춰왔다.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는 해당 업체가 경영 악화로 발전소를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올해 8월 특구 현장을 가본 뒤 해당 기업의 신용을 조회한 결과 채무불이행상황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중순벤처기업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와 삼척시를 아우르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이르면 이달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발표된다. 해당 규제자유특구 해제는 이같은 수소 클러스터 계획과 수소 산업 생태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어렵게 지정받은 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가 해제되면서 행정기관 간 책임 공방이 불거질 조짐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경영 상황은 올해 들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안다"며 "특구 사업 선정 당시에는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김덕형

2023 12 04 ( )

# 강원도민일보

05

## 15개 시·군 비대면 진료 "의료공백 해소" "오진 위험 증가"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강원도내 15개 시·군에서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면 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감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도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를 말한다.

강원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모두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휴일이나 야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면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춘천·원주·강릉 제외, 15일 시작  
정부-의료계 갈등 본격화 전망  
일부지역 미포함 실효성 지적도

정열 철원군 오지3리 이상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시범사업 시행 이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홍천군의 경우 광원리는 대상 지역에 포함된 반면 인근 명개리는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도내 비대면 진료 건수는 보건복지부 집계결과 지난 6,7월 두 달간 총 3878건으로 전국에서 제2다음으로 진료 건수가 적었다.

하지만 도내 의료계는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원도약사회는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초진 범위의 확대는 환자의 편의성이 늘어나기보다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도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만 해도 응급부터 소화장애까지 수십가지"라며 "비대면진료시 오진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 응급진료 후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江原日報

2023 12 04 ( )

04

강릉 통일공원 北 잠수함, 해군 1함대로 이전

市, 내년 초 추진... 통일공원은 20억 들여 오토캠핑장 조성

강릉 통일공원에 전시되고 있는 북한 잠수함이 내년 초 해군1함대사령부로 이전된다.

강릉시는 안인진 일대 통일공원 내 북한 잠수함에 대해 전쟁기념사업회와 협의, 동해시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 1함대 사령부로 이전하기로 하고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통일공원 내 북한 잠수함은 1996년 9월, 25명의 무장 간첩을 태우고 동해안에 침투했던 상어급 잠수함으로 해군에 의해 인양돼 침투 현장에 전시해 왔다. 통일공원이 위치한 안인진은 1996년 무장간첩 침투 이외

에도 1950년 6월25일 북한군이 최초로 남침해 상륙한 곳이기도 하다. 강릉시와 정부는 6·25전쟁과 9·18 북한잠수함·무장간첩 침투 등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곳에 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기리는 통일공원을 조성해 2001년 9월부터 국내 대표적 안보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함정전시관에 전시된 퇴역 함정 '전북함'이 시설 노후와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2021년 10월, 해체식을 갖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곳을 찾는 방문객도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강릉시는 전북함이 있던 함정전시관 부지에 20억원을 들



◇강릉 통일공원에 설치된 북한 잠수함이 20여년 만에 해군1함대로 이전하게 됐다.

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통일공원의 탈바꿈을 시도해 왔다. 강릉시 관계자는 “통일공원을 관광객과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오토캠핑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원 내 북한 잠수함의 해군1함대사령부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江原日報

2023 12 04 ( )

10

춘천시 푸드테크 지역형 신모델로 우뚝

푸드테크산업 발전 포럼 시·강원대 등과 업무협약 한hun 농식품부 차관 참석 정부 연구개발 지원 약속

【춘천】춘천시가 ‘춘천형 푸드테크’ 구축을 통해 미래 농업 전환을 선두에서 이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생산과 유통, 소비 전

반에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바이오 기술 등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지난 1일 열린 춘천 푸드테크산업 발전 포럼에서 육동한 시장은 “기후 변화, 소비자 기호 고급화,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농업 중심지는 강원자치도가 될 것”이라며 “춘천이 푸드테크를 선도해 전국 농업의 선진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춘천형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주도’의 비전을 선포하는 세리머니가 함께 진행됐다. 시와 한국푸드테크협회, 강원대, 한림대, 서울대신학협력단은 푸드테크산업 발전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또 이날 포럼은 한hun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도 참석해 정부와 도 차원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한hun 차관은 “푸드테크산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법령 정비,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으로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조 연설에 나선 강혜영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가 30% 이상 성장했고 정부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으로 산업육성에 나설 방침”이라며 “춘천시가 새로운 지역형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푸드테크 전담TF를 구성, 푸드테크 5개년 실행 계획 수립에 나서는 등 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또 정부가 내년 공모 예정인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유치해 지역 푸드테크 기업의 소재 연구,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윤호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 19

## 장성광업소 폐광 후 가치 활용으로

-광해공단의 폐갱수 처리방식...태백시민 반대 분명해

내년 6월 말 조기 폐광 예정인 태백 장성광업소의 향후 처리를 둘러싸고 현지 주민들과 한국광해공업공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장성광업소 갱내를 폐갱수로 채우는 방식의 광해복구 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태백지역사회에서는 장성광업소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을 기반으로 미래 발전을 위한 폐광도적극 활용 및 대체산업 추진의 상생 동력으로 쓰여야 한다며 반발합니다.

태백 현지에서는 장성광업소의 환경과 가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문에 폐갱수로 일터를 수장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광도 모자라 장성광업소의 자산적 가치를 무시하고 갱내 수장을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인 폐갱수로 장성광업소를 수몰하는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사회 87개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11월 30일 장성광업소 광해복구사업 대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결집했습니다. 장성광업소의 가치 평가와 갱도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용역으로 진행되어야 하

며 시민 뜻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용역 추진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11월 20일 광해공업공단 측의 장성광업소 광해복구 방안 설명회는 주민들이 대거 퇴장, 반발함으로써 무산되다시피 했기에 지역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마련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산업자원부와 광해공업공단 측은 장성광업소의 폐광 이후 진행에 대해 태백시민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현지에서는 폐광 대체산업이 확보되기 전까지 현 갱도를 유지하고 신속한 광해복구를 통해 적화·백화 현상 등 방지 조치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장성광업소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및 사택 활용 방안, 주민 이주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대체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만큼 산업자원부는 광물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폐광 특수성을 살린 활용방안 및 채굴과 광산 관광자원 연구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에서 밀어붙이는 방식의 광해복구사업은 지역 몰락을 가속화하고 주민 감정을 격화할 수 있음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3 12 04 ( )

/ 19

## 수소 공급 대란 되풀이 안 된다

-차량대비 수급량 부족,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수소 부족으로 충전 대란이 발생하는 등 공급 체계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내 수소차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소가 부족한 데다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년째 반복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높습니다. 정부는 탄소 저감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소차 구입 시 자동차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공용주차장과 통행료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 정책을 믿고 수소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극심합니다.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실태 점검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합니다.

얼마전 충남 당진에 위치한 수소 생산업체의 압축설비가 고장 나면서 수소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강원, 서울, 경기 등 중부권 등 수소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난 21일 춘천휴게소 충전소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4시간 단축 운영을 했습니다. 도내 수소차 운전자들은 다음 날 오전부터 황급히 수소 충전을 위해 수소충전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춘천에 위치한 한 수소충전소는 오전 7시 40분부터 30~

40대 정도의 차량이 입구부터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후 오전 9시에 200kg 수소차가 새로 들어왔지만 1시간 반 만에 모두 소진, 충전소 측은 1대당 절반만 충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했습니다.

수소 공급 차질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수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전을 위해 운전자들이 6시간씩 대기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충전소가 차량 증가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소차는 3000대에 이를 만큼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소는 10곳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수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단축 운영과 제한 충전을 하기 일췌입니다.

수소차는 미래 에너지 정책과 연계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정부는 핵심기술 국내화를 위한 생산·유통·활용 등 생태계를 구비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충하고 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생산과 충전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정에너지 산업화라는 정부의 구상과 현실은 보조를 맞춰 가야 합니다. 수급 대란이 또다시 재연된다면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江原日報

2023 12 04 ( )

/ 19

## 깊어지는 경기불황 서민 고통, 민생 대책부터

전례도, 출구도 안 보이는 불황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따른 서민 가계는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일상적으로 내던 공공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도내 1만1,456가구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44억8,371만원이었다. 연말까지 한 달이 남았지만 벌써 지난해 전체 체납가구 수(9,903가구)를 15.7%, 체납액(37억3,720만원)을 20% 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다. 팍팍한 살림에 이

자 상환마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3분기(9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로 전년 동기(0.12%) 대비 0.05%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

출 연체율은 0.13%에서 0.31%로 2배 이상 폭등했다.

불황이니 소비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비지수가 1년2개월째 하락하면서 내수 경제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과 건설 경기도 크게 악화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에 먹구름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강원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9.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낙폭이다. 우리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 컨설팅 업체는 이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로 진단하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게 가장 큰 위기다. 다시 성장 마인드로 무장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길을 찾아야 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일자리는 삶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 추가해 새로운 정책과 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혁신적인 유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경제

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추세는 '헬시에이징 산업'과 같은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다.

### 올 도내 1만1,456가구 전기요금 체납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2배 이상 급등 새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 집중을

이를 지역발전 계획과 연계해 산업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해 실업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지식 집합체인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치단체의 지원·장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타 지역보다 비중이 큰 농림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연결기능 강화를 통한 빈 일자리 채우기, 기존의 일자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 江原日報

2023 12 04 ( )

/ 19

## 올해 동해안 지진 84차례, 대응 역량 키워야 한다

경주에서 최근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내에도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규모 2.0 이상의 99회 지진 중 2번째 규모이며, 육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가장 강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내 건축물 대다수는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였지만 도내 내진설계 건물은 12.9%에 불과했다. 이는 충북(14.7%), 전북(13.6%) 등 강원자치도와 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0동 중 9동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셈이다.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 집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지진은 2020년 45건, 2021년 46건, 2022년 49건이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11월30일까지 지난해 2.3배에 달하는 113건의 지진이 이어진 것이다. 특히 동해 지역에 지진이 집중되며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동해안 인근 지역에서 관측된 지진은 84회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일어난 51회보다도 많았다. 이 중 진도 2 이

상은 20회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된 13건의 약 1.5배를 기록했다. 특히 올 5월15일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갈수록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더해지면서 고강도 지진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제적 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대책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도내 공공건축물의 경우 2만7,932동 중 3,540동에 내진설비가 갖춰져 22.5%의 내진율을 보였지만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2.4%에 그쳤다. 국가적 차원의 지진 대응 역량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악의 지진 사태를 염두에 둔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당연하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활성단층 조사 등도 하루빨리 완료해야 한다. 지진은 대형 재난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진은 막을 수 없어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